



## 중소, 혁신·성장위한 길 2題

〈모태펀드와 요즈마 펀드의 비교〉

구분	요즈마 펀드	모태펀드
정책목적	벤처생태계 활성화	
재원	정부자금	
운용기간	5년 (1993~1998)	30년 (2005~)
주관부처	산업통상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주)
투자대상	창업초기 첨단기술 벤처기업	모든 단계의 중소·벤처기업
운영방식	간접투자자 및 직접투자 병행	간접투자
출자조건	민간참여 60% 이상	민간참여 60% 이상
해외기관 유치	해외 VC가 LP로 필수 참여	해외 VC 참여시 우대
인센티브	5년 이내에 정부 지분을 취득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제공 (연 5~7% 금리 지급조건)	한국벤처투자의 초과수익 50% 이내에서 민간 출자자에게 성과 배분

〈한국의 장수기업 지원 정책〉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소상인 백년가게 육성지원
해당업종 45년 이상 사업 유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명장 확인서 발급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업력 30년 이상 유지 도소매와 음식업 영위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금융 등 정책 지원
기업상속공제제도	기업승계지원센터 설치 운영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기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500억원까지 기업상속재산의 100% 공제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기업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 선진제도 발굴,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 1 요즈마에 비해 초라한 모태펀드

## 탄탄한 벤처생태계 ‘변화 절실’

모태펀드, 6조 투자했지만 회수율 23.6%  
높은 수익률-민간자금 ‘순순환’ 유지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한국벤처투자가 관리하고 있는 모태펀드가 이스라엘의 혁신을 이끌어 온 요즈마펀드와 비교해 성적이 초라해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5년 창설된 이후 지난해 6월까지 6조2000억원을 투자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총 회수율은 23.6%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가운데 기업공개(IPO) 비중은 15.5%, 인수합병(M&A)은 5.4%에 각각 그치면서다.

게다가 모태펀드로부터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기 힘든 것도 모태펀드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 요즈마펀드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48%의 높은 투자회수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출범 당시 투자한 217개 기업 중 56%인 122곳이 IPO나 M&A를 통해 투자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즈마펀드가 투자한 바이오센스는 존슨 앤 존슨이 5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심(E-SIM)은 나스닥에 상장되고 AOL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6일 펴낸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의 전환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의 모태펀드는 출자금을 민간 벤처 벤처캐피탈에 위탁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하지만 벤처캐피탈 관리기구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혁신’보다는 ‘순응’적인 벤처생태계를 만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자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들이 연간 2%의 운용보수에 치

중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펀드의 존속기간이 평균 7년이므로 투자원본의 14%(2%×7년)가 벤처캐피탈에 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100억~300억원 규모의 펀드 운용을 맡으면 투자 성과가 없어도 연간 2억~6억원의 운용보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탈들은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신생 벤처기업 등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보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자금 확보를 위해 업력 3년 초과 중후기 벤처기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벤처생태계가 ‘좋은 투자-높은 수익률-민간자금 유치-더 좋은 투자’가 아닌 ‘안정적 정책자금 취득-낮은 수익률-안정적 정부자금의 존’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탄탄한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과감한 신산업 수용 ▲혁신청 주도의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운영 ▲대학·기업·스타트업 연계 클러스터 ▲군복무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 및 민간 사업 발굴 기회 모색 ▲항공우주산업·핵기술 개발 등 군 주도의 기술 개발 민간 사업 연계 ▲후조파와 같은 모험적 문화의 장려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연구원의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연구 경제(Research Economy)와 상업 경제(Commercial Economy) 간 순환성을 향상시킬 때 혁신 생태계가 탄성하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혁신의 시장화 능력을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혁신 생태계가 ‘혁신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모험 지향의 혁신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고용의 유연성·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2 일자리 창출·혁신 장수기업 육성

## “상속세율·공제혜택 완화해야”

기업승계 지원으로 경영 의욕 북돋아  
투자 확대·고용 증대 등 약속 제도화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65%로 세계 최고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6%)으로 확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근로자수·상속지분 유지 조건 등은 실효성이 떨어져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만 관련 혜택을 받고 기업승계를 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일반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이 기술혁신, 투자확대, 고용증대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홍보실장은 6일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논문을 위해 추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국내 10곳의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해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1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85%,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70%는 가족기업으로 3세대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14%에 그치고 있다. 또 30년 이상 장수기업의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은 63.3%로 고령화가 빠른 모습이다.

기업의 상당수가 2세 또는 3세 등에게 바통을 터치해야 하는 상황이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승계를 위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높고, 기업상속 공제요건은 너무 강화돼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추 실장의 지적이다. 상속세의 경우 한국은 65%로 독일(30%), 미국(40%), 프랑스(45%), 일본(55%)보

다 높다. 또 우리나라 기업상속 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기업승계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를 유지(중견기업은 120%)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10년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도 없고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 10년간 업종변경도 제한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엔 인원수가 아닌 급여 총액 기준으로 일정 기간 급여가 상속연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만 넘으면 된다. 100% 공제의 경우 7년간 임직원 급여 총액이 상속연도 대비 700%를 초과하면 인정하는 식이다. 게다가 종업원 5인 이하 소기업은 급여총액 유지의무가 없고 지분매각도 30%(상속재산 평가시 기업가치 기준)까지 가능하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 경영의욕을 북돋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상속세 인화와 기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업이 정신을 발휘해 국가의 부(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투자확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논문은 또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재자로 나설 경우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대(아버지)와 후대(아들 또는 딸)의 지나친 소통이 부정적 영향을 줘 어머니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핵심가치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관여가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때는 거꾸로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호 기자

### 시몬스 2월까지 ‘난연 매트리스’ 프로모션

시몬스는 ‘난연 매트리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2월말까지 전국 시몬스 침대 공식 매장에서 난연 매트리스 구매 시 판매가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난연 매트리스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제품으로 화재 시 대비 시간을 확보해 대형 화재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일반 매트리스의 경우 한번 불이 붙으면 빠르게 연소해 인체에 해로운

유독 가스를 배출해 실내 전체가 폭발적으로 불꽃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를 일으켜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시몬스는 국내 최조이자 유일하게 일반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을 국제표준규격(ISO 12949)과 이를 기반으로 한국내 표준시험방법(KS F ISO 12949)을 모두 만족시키는 난연 매트리스를 선보였다. /김승호 기자



### 에이스침대 박보검 미공개컷 월페이퍼 공개

에이스침대가 고객들을 위해 모델인 배우 박보검과 함께한 특별 선물을 마련했다. 에이스침대는 공식 블로그에서 박보검이 나오는 배경화면(월페이퍼)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월페이퍼는 PC용 배경화면 4장과 모바일용 배경화면 6장으로 총 10장의 고품질 이미지다. 에이스침대는 박보검이 모델로 나선 이번 광고캠페인 미공개 컷도

월페이퍼로 제작해 함께 선보였다. 이번 공개한 월페이퍼는 ▲박보검의 정면 사진 ▲에이스침대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등 다양한 구도의 연출컷 ▲에이스침대의 슬로건, 텍스트가 적힌 이미지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8월 신규 모델로 박보검을 선정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려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